

#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아동의 모애착, 자아개념, 일상적 스트레스, 우울 비교

남 윤 주 · 이 숙\*  
전남대학교 대학원 생활환경복지학과

## A Comparative Study on the Mother's Attachment, Self-concept, Daily Stress, Depression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and Typical Korean Families.

Nam, Yun Ju · Lee, Sook\*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Univ., Gwangju, Korea

###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d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such as children's attachment to their mothers, self-concept, daily stress, and depression, in both multicultural and typical Korean families.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3rd to 6th grade were surveyed in Chonnam province. 158 case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181 cases of typical Korean families were analyzed by the methods of Cronbach's  $\alpha$  coefficient and independent t-test using SPSS program.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had less attachment to their mothers and self respect than those from typical Korean families. Regarding daily stress,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highly recognize the economic and physical environments, whereas children from typical Korean families highly recognize the academic achievements and the relationships with their teachers.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ere highly prone to depression compared to the children from typical Korean families.

**Key words:** typical and multicultural Korean families, attachment, self-concept, daily stress, depression

### I. 서론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정보화, 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와 사람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우리나라는 단일민족국가에서 다문화·다민족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그 폭이

커지고 있다. 한국사회의 국제결혼 건수의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에 4,710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7년에는 38,491건으로 무려 8배가 증가하였고, 전체 결혼 건수 대비 국제결혼의 비중은 1.2%(1990년)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7년에는 11.1%에 이르고 있다. 특히 농어촌의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국제결혼 빈도가 급증하여, 지난 2006년에는 농어촌 지역에서 혼인한 한국남성 중 41.0%가

접수일: 2009년 7월 29일 채택일: 2009년 8월 16일

**Corresponding Author:** Lee, sook Tel: 062-530-1323 Fax: 062-530-1329  
e-mail: sookleej@hanmail.net

외국여성과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8). 이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혼인연령 남성 세 명 중 한 명 이상이 국제결혼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국제결혼 비율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에서 태어난 자녀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2008)의 다문화가족 자녀 재학 현황을 보면 2005년 에 6,121명에서 2006년 7,998명, 2007년 13,445명, 2008년에는 18,769명으로 2005년에 비해 약 3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2000년 이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국제결혼 비율이 본격적으로 증가한 사실을 감안할 때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는 대부분 5세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앞으로 학교에 진학하는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01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혼혈인 중 9.4%가 초등학교 중퇴, 17.5%가 중학교 중퇴인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일반인의 학교 중퇴율이 1.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다. 현재 초등학교 재학 중인 많은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민감한 중·고교 진학 연령대로 진입할 경우 심리적 위축감과 자신감 상실 등 정서적 발달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여 무단결석, 가출, 폭력 등의 사례가 늘어나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안은미 2007). 이렇듯 다문화가족 아동들이 심리사회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그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가 외국의 현지문화에 이방인으로 편입되면 문화충격(Oberg 1960)을 겪는 것과 같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 역시 문화충격 속에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에 온 외국인 여성들은 가족이라는 사적 공간에 편입되면서 의사소통의 문제와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대한 부적응 때문에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고 이에 따른 심리적, 정서적 위기를 겪게 된다(Ha 2005). 실제로 많은 연구들(김유경 2005; 양순미 2006; 윤형숙 2003; 이해경 2005)에서 국

제결혼 여성의 정서적 부적응 및 부부갈등과 가정 폭력 등의 문제점들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국제결혼으로 탄생하는 2세에까지 연결되어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영주 2007).

다문화가족 아동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치관과 생활태도가 서로 다른 이중문화속에서 성장하면서 많은 갈등과 혼동을 경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성장과정에서 사회와 가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생활이 각각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체성과 가치관의 혼동을 겪을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이중 언어 사용으로 인해 적절한 언어습득이 되지 않는 등 언어습득 지체현상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임경혜 2004), 이와 함께 외국인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기도 한다. 또한 일부 다문화가족 아동의 경우 한 국어에 능숙하지 못하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따돌림이나 소외현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때로는 발달장애나 학습장애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확한 파악조차 제대로 안되고 실질적인 지원책도 없는 형편이다. 더군다나 배타적인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은 단지 혼혈이라는 이유만으로 남들에게 차별대우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강신임 1999). 또, 언어발달지체 및 문화부적응으로 인해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반대로 폭력성 또는 과잉행동장애를 보이는 등의 정서장애를 나타내기도 하며 다문화를 포용하지 못하는 교과서와 교사들의 태도로 인해 사회적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도 높다고 한다(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6). 결국, 아동들은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중퇴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부적응은 사회적 부적응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 2. 선행연구 고찰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를 통해 아동의 실태를 파악(정은희 2004; 윤형숙 2003; 임경혜 2004)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최근 2-3년간 다문화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연구들(박은정 2008;

신혜정 2007; 정현영 2006; 안은미 2007; 이지애 2007)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 연구들은 주로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정체감과 학교생활 적응을 다루고 있으며 포괄적인 심리적 특성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애착, 자아개념, 일상적 스트레스, 우울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를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과 비교해 봄으로써 그들의 심리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심리적 특성은 아동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적응적 입장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긍정적 측면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자아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애착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 느끼는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관계(Bowlby 1958)로서, 많은 애착 연구들이 유아기 때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였던 아동은 그 이후 많은 심리 사회적 부적응을 보이며(Cassidy 1988), 학령기, 학령전기에 행동문제, 충동 통제 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Erickson et al. 1985). 또 자율적인 기능 행동 측면에서의 인지적 능력과 영아와 어머니간의 애착 관계를 살펴 본 Matas 등(1978)의 연구에서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이 불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보다 상징적인 놀이를 더 하고, 열의를 보이며, 어머니의 의견에 더 수용적이며 공격적인 행동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유재은 2002; 재인용). 그리고 자아개념은 개인이 자기 자신의 특성인성, 외모, 정서 행동 경향, 흥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송인섭 1989) 이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자아개념은 아동기에 형성되어 자신의 신뢰감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성격발달에 깊은 관계가 있고, 이미 형성된 자아상은 전 생애를 걸쳐 성공과 행복, 실패와 불행이라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 이처럼 인생 초기인 영유아기에 형성된 어머니와의 애착 및 자아개념은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 및 심리 사회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자아개념의

차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우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상적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생활 장면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적절히 대처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불쾌감, 짜증, 속상함, 불안함 등의 부정적 정서 상태를 의미한다(한미현 1996). 아동기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아동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아동기는 인지, 사회, 신체적인 면에서 지속적인 성장 및 전이와 질적인 변화 과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불안, 고통, 짜증스러움과 같은 스트레스를 어느 시기보다 많이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스트레스는 적절히 경험하면 생활에 활력을 주거나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하게 축적되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해로움을 가져올 수 있으며, 지속적인 스트레스의 압력은 정신질환과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최영희 등 2002). 그리고 우울은 슬픈 감정의 정도가 심하고 오래된 상태를 의미하며, 정서적 증상, 인지적 증상, 생리적 증상을 동반하여야 한다. 정서적 증상은 지속적으로 슬픈 감정과 외로움, 공허감을 느끼며, 인지적 증상은 자기 비난과 죄의식, 무가치함을 느끼고, 사고력과 주의력의 저하가 나타난다. 그리고 생리적 증상은 불면증, 식욕감퇴,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유안진 등 2006). 이러한 우울을 소아청소년기에 겪게 되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가족관계, 교우관계 및 학업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유발하고, 성인기 우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많은 연구(임양화·오경자 1989; Kovacs et al. 1994; Puig-Antich et al. 1993; Rao et al. 1995; Rohde et al. 1994)들에서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우울의 차이를 통해 그들의 부적응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문화가족 시대로의 변화를 맞이하여, 다문화가족 아동과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아동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제공하고

자 하며, 나아가 다문화가족 아동을 지도하는 교사나 부모에게 교육이나 증재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의 모 애착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의 자아개념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4>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의 우울에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질문지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학교별로 공문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여 회수하였고, 연구대상자 선정방법은 전남 교육청에 의뢰하여 전남지역 초등학교 내 다문화가족 아동 수에 대한 리스트를 받은 후 재적인원수를 기준으로 5명 이상인 95개 학교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 500명에게 배부 및 회수하였다. 이중 응답이 누락된 자료나 불성실하게 답한 자료를 제외한 총 339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 2. 조사도구

#### 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애착

어머니 애착은 아동이 어머니에 대해서 느끼는 강하고 지속적인 정서적인 유대관계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Armsden과 Greenberg (1987)가 10~20세를 대상으로 제작한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수정한 개정본(IPPA-R)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의 애착척도와 또래 애착척도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Armsden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N)	Family type N(%)		
	Multi-culture 158(100)	General 181(100)	
Gender	male(164)	79(50.0)	85(47.0)
	female(175)	79(50.0)	96(53.0)
Grade	3th(95)	45(28.5)	50(27.6)
	4th(151)	71(44.9)	80(44.2)
	5th(69)	32(20.3)	37(20.4)
	6th(24)	10(9.4)	14(7.7)
Family structure	nuclear family (257)	117(74.1)	140(77.3)
	extended family (82)	41(25.9)	41(22.7)
Mother nationality	Korea(181)		181(100)
	China(40)	40(25.3)	
	Japan(86)	86(54.4)	
	Southeast Asia(32)	32(20.3)	
Difference of parent age	under 4 (121)	51(32.3)	70(38.7)
	5-9 (158)	62(39.2)	96(53.0)
	over 10 (60)	45(28.5)	15(8.3)
Subjective economic level	low ranking(59)	42(26.6)	17(9.4)
	medium(196)	89(56.3)	107(59.1)
	high ranking(84)	27(17.1)	57(31.5)
Education of father	under middle(48)	39(24.7)	9(5.0)
	high school(161)	80(50.6)	81(44.8)
	university(79)	22(13.9)	57(31.5)
	over graduate school(51)	17(10.8)	34(18.8)
Education of mother	under middle(26)	13(3.8)	13(7.2)
	high school(176)	86(54.4)	90(49.7)
	university(94)	36(22.8)	59(32.0)
	over graduate school(43)	23(14.6)	20(11.0)
Occupation of father	inoccupation, simple work, farming(214)	128(81.0)	86(47.5)
	selling(51)	11(7.0)	40(22.4)
	office management(66)	17(10.8)	49(27.1)
	specialist(8)	2(6)	6(3.3)
Occupation of mother	none(131)	52(32.9)	79(43.6)
	occupation(208)	106(67.1)	102(56.4)

\*p<.05, \*\*\*p<.001

Greenberg가 제작한 IPPA-R을 옥정(1998)이 번안 사용한 부모 애착척도에서 모에 관한 애착척도를 부분 수정하였으며, 예비조사를 걸쳐 신뢰도가

낮은 8문항을 삭제하고, 신뢰감(8), 의사소통(7), 소외감(5)의 3개 하위요인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애착에 대한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값은 .79에서 .88이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93으로 나타났다.

## 2) 자아개념

아동의 자아개념은 아동 개인이 자기 자신의 특성인 성, 외모, 정서 행동 경향, 흥미에 대해서 느끼는 개인적인 평가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기존 척도를 바탕으로(이경화·고진영 2006; 정종진 1996; 송인섭 1990) 수정·보완하였다. 본 척도는 자아개념을 신체능력(5문항), 신체 외모(5문항), 친구관계(5문항), 부모관계(5문항), 학업(5문항), 일반자아(5문항)의 6개 하위요인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평정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보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아개념에 대한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값은 .74에서 .84이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92로 나타났다.

## 3) 일상적 스트레스

일상적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생활 장면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적절히 대처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불쾌감, 짜증, 속상함, 불안함 등의 부정적 상태를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김민정 2005; 한미현 1996; 민하영 1999) 등에서 사용되었던 척도들을 기초로 재구성하였다. 하위요소는 가족관계, 경제 및 물리적 환경, 학업, 교사관계, 친구관계로 각 8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평정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한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값은 하위척도 별로 .75에서 .87이었음 전체 신뢰도는 .92로 나타났다.

## 4) 우울

우울은 슬픈 감정의 정도가 심하고 오래된 상태를 의미하며, 정서적 증상, 인지적 증상, 생리적 증상을 동반하여야 한다. 아동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Kovacs와 Beck(1977)의 아동용 우울척도(CDI)를 조수철과 이영식(1990)이 번역,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7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에 대해 지난 2주일 동안의 자신을 가장 잘 기술해 주는 정도를 0~2점 Likert식 평정척도로 되어 있다. 총점의 범위는 0~5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하고, 다양한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우울에 대한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값은 .82로 나타났다.

##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교차분석,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연구대상 특성

연구대상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대상자의 성과 학년, 가족구조는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이 비교적 고른 분포로 구성되었고, 어머니 국적은 한국이 181명, 중국이 40명, 일본이 86명, 동남아시아가 32명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의 아동이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에 비해 부모 연령차가 10세 이상인 정도가 더 많았으며, 주관적 경제수준에서도 하류층이라는 지각이 더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아버지 교육수준은 다문화가족 아동의 아버지가 중졸이하인 경우 더 많이 분포되어있었고, 아버지 직업에서도 농업과 단순 노동에 분포하는 비율이 한국인 부모 가족아동에 비해 높았다. 어머니 직업유무에서는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의 어머니에 비해 다문화가족 아동의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2.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의 심리적 특성의 차이

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애착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애착의 차이를 비교해보기 위해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으로 구분하여 t-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Children's attachment to mother from multi-culture and general families.

	Multi (N=158)		General (N=181)		t
	M	(SD)	M	(SD)	
Confidence	3.61	(.70)	3.84	(.81)	-2.78**
Communication	3.12	(.66)	3.45	(.86)	-4.02***
Alienation	2.34	(.81)	2.00	(.81)	3.96***
Total	3.45	(.64)	3.75	(.74)	-3.91***

\*\*p<.01, \*\*\*p<.001

※ Alienation score is calculated back.

먼저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애착을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애착의 하위 요소 중에서 신뢰감(M=3.61, M=3.84)을 가장 높게 지각하였고, 소외감(M=2.34, M=2.00)을 가장 낮게 지각하였다.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이 다문화가족의 아동보다 신뢰감, 의사소통, 전체 애착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고, 소외감은 더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2) 자아개념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이 지각한 자아개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가족으로 구분하여 t-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으로 구분하여 아동이 지각한 자아개념을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부모관계와 관련된 부분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신체외모와 학업에 관련된 부분을

Table 3. Self-concep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e and general families.

	Multi (N=158)		General (N=181)		t
	M	(SD)	M	(SD)	
Physical ability	2.90	(.79)	3.24	(.92)	-3.68***
Appearance	2.65	(.70)	2.82	(.90)	-1.88
Friendship	2.91	(.73)	3.14	(.86)	-2.74**
Parents	3.83	(.75)	3.99	(.83)	-1.77
Studies	2.70	(.70)	2.94	(.79)	-2.91**
General self-concept	2.98	(.63)	3.14	(.76)	-2.12*
Total	3.00	(.54)	3.21	(.59)	-3.50**

\*p<.05, \*\*p<.01, \*\*\*p<.001

낮게 지각하였다. 이는 두 집단 아동 모두 부모는 아동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초로 관계를 형성하는 대상이므로 아동의 관계적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두 집단이 공통적으로 신체외모와 학업에 대한 자아개념을 낮게 지각하는 것은 유아기에 일반적으로 높았던 자아개념이 아동기에 들어서면서 여러 영역에 걸쳐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높았던 자아개념들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되고, 특히 자신의 외모에 대해 민감해지고 부모와 사회의 교육적 열의에 의한 학업적 부담이 부정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을 비교했을 때 자아개념의 하위 요소 중 신체능력, 친구관계, 학업, 일반자아, 전체 자아개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능력에서는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이 다문화가족 아동보다 신체 능력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고, 친구 관계에서는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이 다문화가족 아동보다 친구관계와 관련된 자아개념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학업에서는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이 다문화가족 아동보다 자신의 학업능력에 대해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 자아에서는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이 다문화가족 아동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이 다문화 가족 아동보다 자신의 일반적 가치관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아개념에서는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이 다문화 가족 아동보다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이 다문화가족 아동보다 전반적으로 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신체능력, 친구관계, 학업, 일반자아, 전체 자아개념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신체외모와 부모관계에 대한 차이는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다문화가족 아동이 느끼는 외모상의 특징이나 부모 관계보다는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자신의 정체성 혼란 등이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차이를 줄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 3) 일상적 스트레스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이 지각한 일상적 스트레스를 살펴보기 위해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으로 구분하여 t-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으로 구분하여 일상적 스트레스를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족 아동과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 모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은 친구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낮게 느끼고 있었고, 다문화가족 아동은 교사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낮게 느끼고 있었다. 특히 교사관계에 대한 영역은 선행연구들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의 어머니들이 교사의 차별로 인해 자녀들이 소외감을 느낀다고 보고한 것(홍영숙 2007)과 달리 아동이 직접 지각하는 것에서는 교사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것과 아동이 지각하는 것의 주관적인 차이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는 어머니의 지각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들이 비교적 다문화가족 시대 초기에 연구된 것들이므로,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

Table 4. Daily stres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e and general families.

	Multi (N=158)		General (N=181)		t
	M	(SD)	M	(SD)	
Famliy	2.27	(.62)	2.34	(.90)	-0.86
Economic and physical environment	2.26	(.54)	2.11	(.79)	2.09*
Studies	2.67	(.67)	2.85	(.87)	-2.16*
Teacher	1.97	(.66)	2.15	(.91)	-2.03*
Friendship	2.17	(.72)	2.02	(.81)	1.70
Total	2.27	(.48)	2.29	(.63)	-0.44

\*p<.05

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위 요소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경제 및 물리적 환경, 학업, 교사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전체 스트레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 및 물리적 환경’ 영역에서는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이 다문화가족 아동보다 스트레스를 덜 지각하였고, ‘학업’ 영역에서는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이 다문화가족 아동보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 영역에서는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이 다문화가족 아동보다 교사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이 다문화가족 아동에 비해 학업과 교사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꼈고, 다문화가족 아동은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에 비해 경제 및 물리적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 4) 우울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이 지각한 우울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으로 구분하여 t-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Depression of children from multi-culture and general families.

	Multi (N=158)		General (N=181)		t
	M	(SD)	M	(SD)	
Depression	17.09	(8.14)	15.03	(6.28)	2.58*

\*p&lt;.05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에 따른 우울을 살펴본 결과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의 우울이 다문화가족 아동의 우울보다 낮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족 아동이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보다 우울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다는 이러한 결과는 김경자(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의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애착, 자아개념, 일상적 스트레스, 우울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애착은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 전체 애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애착의 하위요소별로 보면 신뢰감, 의사소통 영역에서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이 다문화가족의 아동보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고, 소외감 영역에서는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이 다문화가족의 아동보다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이 다문화가족 아동에 비해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높게 지각하는 것은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언어·생활 경험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문화가족 아동의 성장 환경과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의 성장 환경이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국제결혼가정의 여러 실태 조사(보건복지부 2005; 설동훈 등 2005; 조영달 2006)들에서 외국인 어머니들이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부갈등과 자녀양육에 대한 애로를 호소하였는데, 이것이 부모-자

녀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설동훈 등의 연구(2005)를 보면, 언어와 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한 부부간 불화가 이주 여성의 부부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며, 남편의 친척들이나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도움은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언어와 문화의 차이와 갈등을 해소할 장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다문화가족의 어머니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녀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미취학 자녀를 낳아 누가 주로 돌보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들 가운데 37.6%가 '본인·남편 또는 기타 가족'이라고 답하였고, '시설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맡긴다는 응답자들은 27.5%에 불과하여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미처 덜 극복한 상당수의 이주 여성이 미취학 자녀 교육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머니와 자녀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이 성장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아동이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어머니 나라에 따른 문화적 특성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함께 반영한 부모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의 자아개념의 하위요인인 신체능력, 친구관계, 학업, 일반자아, 전체 자아개념은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이 다문화가족 아동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낮은 자존감을 보고하였다는 김갑성(2005)의 연구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다. 친구관계 영역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이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에 비해 자아개념을 낮게 지각하는 것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이 대인관계에 소극적이라는 정정희(2006), 한영현(2006)의 연구결과와,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에 비해 친밀성을 느끼는 정도가 낮다는 송선진(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아동은 두 나라의 문화가 혼재된 가정교육과 한국의 학교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단지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낮은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아동이 안정되고 수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상생활에 적응하고 지지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아개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담 및 지지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에서는 경제 및 물리적 환경, 학업, 교사관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 및 물리적 환경 영역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이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꼈고, 학업과 교사관계의 영역에서는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이 다문화가족 아동에 비해 스트레스를 높게 느꼈다. 특히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이 다문화가족 아동에 비해 학업 영역에서 높은 자아개념을 나타낸 반면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은 자신의 학업 성취가 성공적이라고 느끼고 있는 반면에 부모나 주변의 학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높아져 오히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과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적응을 비교한 이지애(2007)의 연구에서도 성적이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적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의 학교적응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역시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이 다문화가족 아동에 비해 학업(성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의 경우에는 학업과 교사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의 경우에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넷째,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의 우울은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이 다문화가족 아동에 비해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다문화가족 아동이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에 비해 높은 우울을 나타냈다는 김경자(2007)의 연구와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30%가량이 '우울이나 무력감'

을 경험하고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의 자아개념, 일상적 스트레스, 우울의 차이를 비교해봄으로써 다문화가족 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문화가족 아동을 지도하는 교사나 부모에게 교육이나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남지역의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두 집단 간의 영향요인이 명확히 차단되지 않았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대도시 지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구와 명확하게 영향요인이 차단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각 변인들의 차이를 통해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과 그들 관계에 대한 구조적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강신임(1999) 한국사회의 다문화화와 교육의 과제. 동국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28.
- 교육과학기술부(2008) 국제결혼가정 자녀재학 현황.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혼혈 청소년) 연구: 사회적응 실태조사 및 고령관련조사.
- 김갑성(2005)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서울교육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자(2007)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적 문제와 학교적응.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2005)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가정 및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경(2005) 가족원 특성에 따른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 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 103, 47-72
- 민하영(1999)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내외 통제소재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은정(2008) 초등학교 고학년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개념 및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구안.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 여성 실태조사 및

- 보건·복지 지원 정책 방안 발표회 자료집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 설동훈 등(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송선진(2007)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사회화 과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인섭(1989)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서울: 양서원.
- 송인섭(1990) 자아개념진단 검사, 서울: 한국심리적성연구소.
- 신혜정(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은미(2007) 농어촌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순미(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 분석: 중국, 일본, 필리핀 이주여성 부부 중심. 농촌사회, 16(2), 151-179
- 오경자·임양화(1989) 우울한 아동의 귀인유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8(1), 69-76.
- 옥정(1998) 청소년기 애착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안진·이점숙·정현심(2006) 또래 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31-41.
- 유재은(2002) 부모와의 애착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형숙(2003)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2003년 한국사회학회, 한국문화인학회 공동심포지움 자료집, 59-84.
- 이경화·고진영(2006) 자아개념검사,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 이영주(2007)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애(2007)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비교연구: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혜경(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임경혜(2004) 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에 따른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희(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과 언어 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33-52.
- 정정희(2006) 결혼이주여성 자녀의 기초학습 능력증진과 정체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대구경북연구원.
- 정종진(1996) 초등학교 아동용 자아개념 검사의 개발 및 표준화에 대한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학생생활연구, 22집, 64-66.
- 정현영(2006)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아시아 여성과 한국남성의 이중문화가정자녀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수철·이영식(1990) 한국형 소아우울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29(4), 943-956.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교육인적자원부 연구용역과제 최종보고서.
- 최영희·박영애·박인전·신민섭(2002) 아동의 우울 및 불안 경향과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203-214.
- 통계청(2008) 인구동태, 혼인 추이. <http://www.nso.go.kr>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영현(2006) 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복지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전라남도 연구용역보고서.
- 홍영숙(2007) 다문화가정이 봉착하는 자녀교육 문제와 시사점. 광주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Ha Minh Thanh(하 밍 타이)(2005) 1992년 이후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rmsden GC, Greenberg M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Bowlby J(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he his mother. Inter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Cassidy(1988) Child-Mother attachment and the self at age six. Child Development, 57, 331-337.
- Erickson MF, Sroufe LA, Egeland B(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the attachment and behavior problem in preschool in high-risk sample. In I.
- Matas L, Arend RA, Sroufe LA(1978) Continuity of adaptation in the second year: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and later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49, 547-556.
- Kovacs M, Krol RSM, Voti L(1994) Early onset psychopathology and the risk for teenage pregnancy among clinically referred girls. Journal of American Academic Child Adolescent Psychiatry, 32, 8-20.
- Oberg K(1960) Culture Shock: Adjustment to new culture environment. Practical Anthropology, 7, 177-182.
- Puig-Antich J, Kaufman J, Ryan ND(1993) The psychological functioning and family environment of depressed adolescents. Journal of American Academic Child Adolescent Psychiatry, 32, 244- 251.

Rao U, Ryan ND, Birmaher B(1995) Unipolar depression in adolescents: clinical outcome in adulthood. *Journal of American Academic Child Adolescent Psychiatry*, 34, 566-578.

Rohde P, Lewinsohn PM, Seeley JR(1994) Are adolescents changed by an episode of major depression? *Journal of American Academic Child Adolescent Psychiatry*, 33, 1289-1298.